

전라남도 노인보건복지에 있어서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연계실태 및 관련요인

이정애, 정은경^{*†}, 함철호^{**}, 이영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bstracts>

The Linkage of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nnam Province and its Related Factors

Jung-Ae Rhee, Eun-Kyung Chung^{*†}, Cheol-Ho Ham^{**}, Young-Hu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linkage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eonnam Province and its related factors.

The subjects were 831 persons of visiting health service workers and social welfare workers in Jeonnam Province who responded the mail questionnaire (85.5% response rat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5th May to 30th June, 2004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It was composed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services referred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orkers, and interdisciplinary perception. Data was analysed by SPSS for Windows 12.0.

374(45.0%) reported having experience of service cooperation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orkers for the last three month. The most service that health care

*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2003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접수 : 2005년 5월 30일, 심사완료 : 2005년 12월 29일

† 교신저자 : 정은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062-220-4175, sehyukmom@hanmail.net)

workers requested to social welfare workers was to get information for the client, on the other hand the most service that social welfare workers requested to health care workers was to visit and treat the elderly. These service providers in rural area and good attitude toward the cooperation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 showed more link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coordinating program of health and welfare.

Key Words : Health, Social welfare, Linkage, Elderly

I. 서론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이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20년에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일상생활 수행상의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 및 복지욕구가 공존하는 의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보건분야와 복지분야간 연계 없이는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없는 서비스에 한정되거나 한 대상에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기 쉽다(Hokenstadt et al, 1979; 박경숙, 1996; 강혜규, 1998; 김정우 등, 1998; 김경혜, 1999). 또한 이러한 욕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에 따라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이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통합이라는 주제는 1980년대부터 복지선진국에서는 매우 보편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과 일본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은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NHS &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와 복지, 양부문의 연계를 법으로 강제화하였다(석재은, 2000). 세계 최고 장수국가인 일본은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 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의 미비점을 수정하여 신골드 플랜을 작성하였는데,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계획, 시행하고 있다(조추용, 1997).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보건의료복지 전문직간의 협동 서비스(inter-professional care) 및 노인들을 위한 보건·복지 전문직간 팀접근(team approach)이 강조되고 있다.

Katan(1982)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양 체계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음의 3가지 주요한 가정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는 상호관련이 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조직사이의 그리고 조직의 종사자사이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의료조직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활단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탐지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기관은 개개인들의 의료적 문제를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계 기관 상호간의 연계에 의해서 이러한 개인들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개인들의 문제는 적절하게 치료될 수 있다. 셋째, 양 체계간의 협동은 시설과 인력과 같은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중복서비스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접근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라남도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복지 연계 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노인보건복지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조사지역은 전남지역 22개 시·군이며, 조사대상자는 보건의료전문직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었다. 2004년 5월 현재 방문간호사 654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21명으로 전체 9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975명 중 83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85.5%이었다.

2. 설문조사

자료 수집은 도보건과를 통해 협조공문을 각 시·군에 미리 보낸 후, 조사지역을 직접 방문

하여 지역 대상자 대표들에게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시 지역 대상자 대표들로부터 지역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배포함과 동시에 교육을 하게 한 후 대상자 각각이 설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기록하여 우편으로 반송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실태,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 등이었다.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실태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3개월간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횟수 및 내용이었다.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은 Duncanis와 Golin(1979)이 개발한 전문 분야간 인식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인식,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다. 신뢰도 검정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05이었다. 또한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는 Payne(1993)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며 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919이었다.

자료는 2004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실태는 빈도로 표시하였으며,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수준 및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62명으로 31.5%, 방문간호사 569명으로 58.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76.3%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6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지역이 군 지역인 경우가 67.9%이었고, 근무경력(년)은 5년 미만인 경우가 70.2%로 가장 많았다. 방문간호사의 경우는 성별로는 여성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이 43.9%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지역이 군 지역인 경우가 80.7%이었고, 근무경력(년)은 15년 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 명(%)

항목	구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n=262)	방문간호사 (n=569)	전체
성별	남	62(23.7)	7(1.2)	69(8.3)
	여	200(76.3)	562(98.8)	762(91.7)
연령(세)	30 미만	69(26.4)	13(2.3)	82(9.9)
	30-39	134(51.3)	172(30.3)	306(36.9)
	40-49	49(18.8)	296(52.2)	345(41.7)
	50 이상	9(3.4)	86(15.2)	95(11.5)
교육수준	고졸	10(3.8)	50(8.9)	60(7.3)
	전문대졸	64(24.6)	246(43.9)	310(37.8)
	대졸	174(66.9)	220(39.2)	394(48.0)
	대학원졸	12(4.6)	45(8.0)	57(6.9)
근무기관 소재지	시지역	84(32.1)	109(19.3)	193(23.3)
	군지역	178(67.9)	456(80.7)	634(76.7)
근무경력(년)	5 미만	170(70.2)	174(31.6)	344(43.4)
	5-9	15(6.2)	64(11.6)	79(10.0)
	10-14	52(21.5)	79(14.4)	131(16.5)
	15 이상	5(2.1)	233(42.4)	114(14.4)

2. 일반적 특성 및 담당업무 특성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 실태

지난 3개월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총 374명으로 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에게 의뢰한 경험은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군 지역에서, 그리고 근무경력(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 및 담당 업무 특성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의뢰경험

단위 : 명(%)

항 목	구분	의료경험	
		없음	있음
전체		457(55.0)	374(45.0)
성별	남	43(62.3)	26(37.7)
	여	414(54.3)	348(45.7)
연령(세)*	30 미만	47(57.3)	35(42.7)
	30-39	190(62.1)	116(37.9)
	40-49	173(50.1)	172(49.9)
	50 이상	46(48.4)	49(51.6)
교육수준	고졸	35(58.3)	25(41.7)
	전문대졸	173(55.8)	137(44.2)
	대졸	216(54.8)	178(45.2)
	대학원졸	27(47.4)	30(52.6)
담당업무	사회복지전담요원	156(59.5)	106(40.5)
	방문간호사	301(52.9)	268(47.1)
근무기관 소재지*	시지역	123(63.7)	70(36.3)
	군지역	330(52.1)	304(47.9)
근무경력(년)*	5 미만	196(57.0)	148(43.0)
	5-9	40(50.6)	39(49.4)
	10-14	87(66.4)	44(33.6)
	15 이상	117(49.2)	121(50.8)

*p<0.05 by Chi-square test

3.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서비스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 시 지역의 경우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50.5%, 사회복지관련기관 의뢰 45.2%,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원 파견 42.9%, 정서적 서비스 33.3%, 식사 및 밑반찬 서비스 33.3%, 아미용 서비스 21.4%, 가사 서비스 19.0% 순 이었다. 또한 군 지역의 경우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66.8%,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원 파견 44.2%, 정서적 서비스 40.3%, 사회복지관련기관 의뢰 39.8%, 식사 및 밑반찬 서비스 39.2%, 이동목욕서비스 35.8%, 아미용서비스 31.4% 순이

었다(표 3).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서비스는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시 지역의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관리 50.5%, 치과서비스 42.9%, 노인건강진단 35.7%, 방문간호 35.7%, 방문진료 32.1%, 건강상담 32.1% 순이었다. 또한 군 지역의 경우 방문진료 61.5%, 노인건강진단 55.1%, 방문간호 50.0%, 건강상담 28.2%, 치과서비스 21.8%, 재활치료 17.9% 순이었다(표 4).

4.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 및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에 따른 연계실태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경험이 있는 경우 3.34±0.53, 의뢰경험이 없는 경우 3.24±0.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경험이 있는 경우 3.06±0.45, 의뢰경험이 없는 경우 2.92±0.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5).

<표 3> 지역별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경험 및 서비스 내용

	단위 : 명(%)	
	시지역	군지역
의뢰경험	42(15.7)	226(84.3)
의뢰한 서비스 내용*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21(50.0)	151(66.8)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원 파견	18(42.9)	100(44.2)
사회복지관련기관 의뢰	19(45.2)	90(39.8)
정서적 서비스	14(33.3)	91(40.3)
이동목욕 서비스	5(11.9)	81(35.8)
이·미용 서비스	9(21.4)	71(31.4)
식사 또는 밑반찬 서비스	14(33.3)	66(39.2)
가사 서비스	8(19.0)	56(24.8)
재활기구대여	6(14.3)	39(17.3)
후원금 지급 및 결연	6(14.3)	34(15.0)
후원물품 지급	6(14.3)	33(14.6)
취업 및 부업알선	4(9.5)	30(13.3)

* 중복응답

<표 4> 지역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간호사에게 의뢰한 경험 및 서비스 내용

단위 : 명(%)

	시지역	군지역
의뢰경험	28(26.4)	78(73.6)
의뢰한 서비스 내용*		
방문진료	9(32.1)	48(61.5)
노인건강진단	10(35.7)	43(55.1)
방문간호	10(35.7)	39(50.0)
치과서비스	12(42.9)	17(21.8)
건강상담	9(32.1)	22(28.2)
회귀, 난치성 질환관리	14(50.0)	10(12.8)
재활서비스	3(10.7)	14(17.9)
보건교육	3(10.7)	7(9.0)
한방서비스	2(7.1)	7(9.0)
호스피스 간호	1(3.6)	6(7.7)
재가암환자 관리	1(3.6)	2(2.6)

* 중복응답

<표 5>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 및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에 따른 의뢰경험

단위 : 평균±표준편차

	의뢰경험		t 값	p-value
	없음	있음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	3.24±0.46	3.34±0.53	2.866	0.004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	2.92±0.50	3.06±0.45	4.162	0.000

5.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요인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군 지역인 경우 비차비 1.660(95% 신뢰구간:1.155-2.387)로 높았으며,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비차비 1.544(95% 신뢰구간:1.098-2.171)로 높았다.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6).

IV. 고 찰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은 매우 크다. 즉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서비스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비스체계는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각각 상이한 관할부처 및 운영주체, 전문적 지침, 전문가 집단,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단편성, 조정의 부재, 비연속성의 문제 등 쉽게 하나의 조직으로 조합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의존성,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양 체계의 서비스가 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특히 노인인구의 18.9%가 재가서비스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그 수가 백만명에 육박하리라 보고 있다(선우덕, 2002). 이처럼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 노인이 늘어나고, 특히 일상생활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들의 가족수발 요구는 늘어나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감소, 노부모 공양의 전통적인 효 가치관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노인보호에 대한 가족책임 의식이 줄었으며, 또한 자녀와의 별거노인(독거노인, 부부노인)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보호능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가옥, 1994; 정경희, 1998).

그러나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질병의 치료 및 진행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일상적인 가사 및 활동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최병호, 2001). 이는 기존 보건소의 방문보건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지는 않는다고 보고된 것(김금순 등, 2001)과 같이 노인의 기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보건복지 전문직들이 전문직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보건의료-복지 연계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촌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복지 연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3개월간에 걸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5.0%로 나타났다. 의뢰한 경험이 없었던 이유로는 '의뢰할 대상자는 있었으나 의뢰기관이나 의뢰절차를 알지 못해서'가 185명(40.5%), '업무가 바빠서'가 141명(30.9%), '의뢰한 대상자가 없어서'가 106명(23.4%), 무

<표 6> 노인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의뢰경험 관련 요인

항 목	구분	비차비	95% 신뢰구간
성별	남	1.000	
	여	1.142	0.630-2.069
연령(세)	30 미만	1.000	
	30-39	1.025	0.572-1.836
	40-49	1.642	0.872-3.092
	50 이상	1.518	0.714-3.226
교육수준	고졸	1.000	
	전문대졸	1.048	0.573-1.917
	대졸	1.192	0.654-2.174
	대학원졸	1.606	0.733-3.518
담당업무	사회복지전담요원	1.000	
	방문간호사	0.878	0.569-1.356
근무기관 소재지	시지역	1.000	
	군지역	1.660	1.155-2.387
근무경력(년)	5 미만	1.000	0.774-2.218
	5-9	1.311	0.419-1.037
	10-14	0.659	0.639-1.485
	15 이상	0.974	
타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		1.334	0.974-1.827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긍정도		1.544	1.098-2.171

응답이 24명(3.5%)으로, 의뢰하지 않은 이유의 대부분이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문제점이었다.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가정봉사원 및 자원봉사원 파견, 사회복지관련기관 의뢰, 정서적 서비스 순 이었다. 서울시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 및 복지영역 서비스 연계 실태를 조사한 정문희와 유인영(2002)의 연구에서도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 지원 요청 및 가정도우미 의뢰 등이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서비스는 방문진료, 노인건강진단, 방문간호, 치과서비스, 건강상담 순 이었다. 정문희와 유인영의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요원로부터 의뢰받는 서비스를 조사하였는데 방문간호, 건강상담, 진료기관연계의뢰, 건강진단, 방문진료 순으로 순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였다. 조사된 보건의료전문직과 사회복지전문직에 의뢰된 서비스는 향후 보건의료과 복지간

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서비스 내용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보건의료·복지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군 지역인 경우가 시 지역인 경우보다 의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역에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 적음과 접근 용이성, 그리고 두 전문직종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도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 의뢰 경험이 많은 것인지 또는 의뢰한 경험에 의해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의 긍정도 변화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나 어느 쪽이든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으로부터의 지난 3개월간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경험 및 내용을 자기기입식보고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전라남도의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건복지에 있어서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연계와의 관련요인을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서비스 수요자 및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일정기간동안 전향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퇴행성 질환 및 일상생활 수행상의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우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 및 복지요구가 공존하는 의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난 3개월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총 374명으로 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한 경험이 없었던 경우의 71.4%가 '의뢰할 대상자는 있었으나 의뢰기관이나 의뢰절차를 알지 못해서' 또는 '업무가 바빠서'로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문제이었다.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가정봉사원 및 자원봉사원 파견, 사회복지관련기관 의뢰, 정서적 서비스 순 이었고,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서비스는 방문진료, 노인건강진단, 방문간호, 치과서비스, 건강상담 순이었으며, 시군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건의료복지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군 지역인 경우가 시 지역인 경우보다, 그리고 전문직간 서비스 연계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보건의료복지연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혜규. 시범보건복지서사무소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1998.
- 김경혜.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 김금순, 서문자, 조남옥, 김인자. 재가와상노인 서비스제공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1;31(4):656-68.
- 김정우, 이주열, 엄명용.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I:모델개발을 위한 사례관리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1998;35:245-60.
- 박경숙.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 사회복지서비스내 서비스 연계실태. 성곡농총 1996;27(3):31-2.
- 석재은.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보건복지포럼; 2000;48:51-62.
- 선우덕.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실태와 정책 수립방향. 보건복지포럼 2002;66:71-83.
- 이가옥.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 정경희.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 정문희, 유인영. 보건 및 복지영역 서비스 연계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인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6:155-67.
- 조추용. 보건복지의 연계통합에 관한 고찰 -일본 재가케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97;17(1):74-93.
- 최병호. 한국에서의 장기요양보험 도입 전망과 과제. 한국 RAI 연구회 창립 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24-59.

Ducanis, A., & Golin, A. The Interdisciplinary health care team: A handbook. London :
Aspen Systems Corporation;1979.

Hokenstadt MC, Rityo RA and Rosenberg M.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ink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Social Work 1979;22(4):13-21.

Katan I, Hokenstad J, Ritvo RA. Linking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Sage : Beverly Hills;1982.

Korea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s. URL : <http://www.nso.go.kr>

Payne M. Linkages : effective networking in social care. London : Whiting & Birch;1993